

‘세계의 신화’ 크리스토퍼 톰 지음

## 상상하라 보이지 않는 세계 신화를

영국의 미술사학자 크리스토퍼 톰이 쓴 ‘세계의 신화’는 적잖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두께(352페이지)와 깨알 같은 글씨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읽을만한 흥미로운 요소가 적지 않다.

우선, 화려하고 풍부한 사진 자료는 인간의 상상 속 세계를 엿보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 책장을 넘기는 재미를 더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갤러리에서나 볼 듯한 사진 자료가 페이지마다 채워져 있다. 사진이 글보다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스럽게 배치한 점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사실 신화 관련 서적은 수없이 많다. 특히 문헌에는 고유한 신화가 존재하는데, 분야도 다양하게 나뉘고 수백가지 신의 이름과 온갖 사연을 담고 있는 만큼 제대로 헤아리면서 읽는 것도 여간 쉽지 않다.

그나마 신화가 탄생하게 된 전통, 주변 사회·문화적 배경,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욕망까지 더해볼라 치면 책장 넘기는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렵다’거나 ‘무겁다’는 부담감이 들면서 결국 중간에 책장을 덮어 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면에서 ‘세계의 신화’ 속 풍부한 자료 사진은 독자가 책에서 손을 떼지 않게 하는 ‘미끼’로 활용되기에 충분하다. 사진 설명만 읽고 지나쳐도 무방할 듯 하다.

저자는 그리스·로마 신화를 비롯, 노르웨이, 불교, 동양 신화, 아메리카 원주민,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신화 등 전 세계 방대한 신화를 모두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신화 속 천지창조, 불멸의 사랑, 질



프란체스코 보티차니의 작품 성모승천.

(시그마북스 제공)

투, 영웅, 모험 등 온갖 사연을 담은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신화가 갖는 공통점을 들여다보는 게 흥미롭다. 고대 그리스의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나 페르시아의 영웅 로스타, 3500년전 쓰여진 서사시에 나오는 영웅 길가메시 등의 신화에서 신성한 부모 밑에서 특이하게 태어나고 어린 나이에 첫 번째 위험을 맞이하는가 하면, 영웅다운 특출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영웅 신화에서 드러나는 비슷한 요소를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연대별, 문화별 관점이 아닌, 전 세계 신화를 주제별로 묶어서 소개하는 점도 비슷한 종류의

책들과는 사뭇 다른 형태다. ‘초자연적 존재’, ‘지상’, ‘인류’, ‘신의 선물’, ‘동물의 왕국’, ‘상징적 물질’, ‘영웅’, ‘탐험, 여정, 서사시’ 등으로 묶어 온갖 신화 속 얘기를 전한다.

저자는 이 방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보편적 양식을 공유하는지, 인간의 상상력이 세대를 거쳐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되는지를 탐구하고 되풀이되는 주제로 나타내고 싶어하는 큰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보는 맛이 있고 읽는 재미도 적지 않은 책, 그래서 한번 읽어볼만 하다.

〈시그마북스·4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시대의 아픔, 사회지도층 부패 들춰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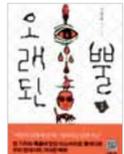
‘오래된 뿔 1·2’

고광률 지음

30년이 넘게 흘렀지만 1980년 5월 당시의 후유증이 시달리고 있는 5·18 관련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진실 규명과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점차 잊혀져가는 현실에서 올해 호서문화상 수상작인 ‘오래된 뿔’은 그 기억을 고스란히 되살려낸다.

소설은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부터 1987년 6월 항쟁,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사이의 기간을 주요 배경으로 삼아 시대의 아픔과 사회 지도층의 부패를 들춰낸다.

소설은 지역신문 기자인 박갑수의 의심스러운 죽음으로 시작한다. 단골 카페에서 주인인 오 마담과 술을 마시던 그가 옆 탁자에 있던 강과와 딸씨를 끌어 끌어 찢러 찢멸하고 강과는 우발적 살인이었다며 자수하지



만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지고 있다.

소설 속 현재인 1987년과 80년을 수시로 오가면서 퍼즐 맞추듯 범행의 배후를 추적해나가는 추리소설 형식을 빌려 무거운 역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소설이라고 하지만 사회 지도층의 추악함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데, 현재도 일부 지도계층의 부패가 여전히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속 얘기로만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데도 공헌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조선대를 방문한 뒤 집필에 나섰다는 저자 고광률 대변인 교육개발원영팀장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은행나무·각권 1만2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새로운 문명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앨빈 토플러 지음

‘제3의 물결’인 정보화 혁명을 예견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지난 1983년 발표한 책으로, 미국의 독립 출판사인 사우스엔드프레스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엮었다.

토플러는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변화 흐름을 지적하고 인본적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분석과 전망을 드러낸다.

책은 ‘예견’과 ‘전제’로 나눠 경제위기, 노동의 미래, 여성의 역할, 탈산업화 시대의 국가 전략, 미래 사회에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의미,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까지 시야를 넓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대표작 ‘미래 쇼크’, ‘제3의 물결’ 등에서 제시된 미



래 예측 이론을 대화체로 쉽게 풀어낸 전문적 내용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고 있다.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토플러의 개인사가 담겼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의 미래 사회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비롯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종합하고 구조화시켜 새로운 변화 모델을 제시하는지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는 또 미국 뉴욕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그가 졸업 후 5년 동안 주를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경험한 노동자로서의 삶도 처음으로 소개한다.

〈창림출판·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스라엘은 왜 가자를 침공했을까

## 폭력·죽음... 삶과 현실을 직시한다

‘핀켄슈타인의 우리는...’

노먼 핀켄슈타인 지음



‘핀켄슈타인의 우리는 너무 멀리갔다’는 지난 2008년 12월 이뤄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진상과 의도를 파헤치고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화약고, 가자지구 내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책으로, ‘홀로코스트 산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이미지와 현실’ 등을 펴낸 유대인 역사학자 노먼 핀켄슈타인이 이스라엘의 만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특

살’을 고발한다.

저자는 책 말미에 “이스라엘은 가지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만 한다”면서 “가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집,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정도 심판은 기본적인 정의”라고 썼다. 〈서해문집·1만2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갈라진다 갈라진다’

김기택 지음



‘꿈쩍도 하지 않는 바스를 움직여 보려는 듯 발들이 동동 구른다.../계속 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이 모든 게 핸드폰의 잘못이라고 되는 양 일들은 핸드폰에 게 야단을치고 짜증을 퍼붓는다’(금단 증상 중)

‘갈라진다 갈라진다’는 시인 김기택씨가 ‘꿈’ 이후 3년 만에 내놓은 여섯번째 시집이다. 첫 장에 “최소하지 만 또 시집을 낸다”고 썼지만 독자들

에겐 반가울만한 시들이 가득하다.

시집에는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흐른다. 자연적 죽음이 아닌, 현재 일상화된 사건이 됐을 만큼 빈번히 발생하는 살인·자살 등 비극 야단을 치고 짜증을 퍼붓는다(금단 증상 중)

〈문학과 지성사·8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권오길의 괴짜 생물 이야기’

권오길 지음



55일간 빨판으로 알을 닦아 주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물을 흘려주며 알뜰살뜰 보살피다가 새끼가 태어나서 떠날 기미를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주꾸미, 30년이나 60년 또는 100년을 주기로 일생에 딱 한번 꽃을 피우고 나면 ‘개화병’에 걸려 얼마 뒤 죽어버리는 대나무.

‘권오길의 괴짜 생물 이야기’는 ‘달팽이 박사’로 알려진 권오길 강원대 생물학과 명예교수가 국내 대표적 토종 생물을 골라 생애와 정보를 흥미롭게 담아낸 책이다. ‘꿈꾸는 달팽이’, ‘바다를 건너는 달팽이’, ‘하늘을 나는 달팽이’, ‘생물의 죽살이’ 등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권 교수는 이번 책에서도 인간, 동·식물, 미

생물 등이 땅의 온갖 생물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깊은 성찰을 전한다.

사냥 성공률이 20%에 불과한 호랑이 애기나 출산의 달인이라는 말이 나올 만한 박쥐의 번식 전략, 과학 수사에 사용되는 빈대의 능력, 겨울이면 아예 ‘냉동’상태로 얼어붙어 버렸다가 봄에 다시 깨어나는 청개구리, 1억4500만년 동안 버려온 고사리 등 몰랐던 솔깃한 내용이 적지 않다. 사진·그림이 없지 않은 재미가 쏠쏠하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모두 평범하지만 나중에 발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간다는 사실부터 손가락을 꺾으면 소리가 나는 이유 등도 설명한다.

〈울음문화사·1만3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신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랑시 100선 =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이 국내외 사랑시 100편을 모아 엮었다. ‘기다림’, ‘이별의 정한’, ‘그리움’,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나눈 뒤 국내 대표 사랑시와 해외 문인들의 시를 엄선해 실었다. 황동규 시인의 ‘즐거움 편지’,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신석영의 ‘임께서 부르시면’, J. 포스터의 ‘다시 태어나도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등 익숙한 사랑시가 가득하다. 〈북오선·1만2000원〉

▲내 인생 후회되는 한 가지 = 우리 시대 명사 50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를 모아 엮어냈다. 시골의사 박경철씨가 고백하는 의대생 시절, 몸이 안 좋다는 아버지 말을 과로 탓으로 넘겼다가 며칠만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대한 예기, 공주디자인비엔날레 감독을 지냈던 건축가 승효상씨가 꺼낸 죽음과 바꾼 신희 첫 날밤에 대한 사연 등 명사들이 고백한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 한가지가 오롯이 담겨있다. 〈위즈덤경제·1만3000원〉

▲동양학을 읽는 필요일 = 동양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조용현 원광대 교수가 건네는 인생살이에 대한 조언을 칼럼 형식으로 담았다. ‘만권의 책을 읽다’(독만권서·讀萬券書), ‘만 리 길을 여행하다’(행만리로·行萬里路), ‘사물을 보고 이치에 이르다’(격물치지·格物致知), ‘대자연의 이치는 끝이 없다’(조화무궁·調和無窮) 4개의 주제 306개의 글을 엮었다. 〈알에이치코리아·1만4000원〉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 = 인문학 특강을 온라인에서 방송했던 최진기씨가 펴낸 인문학 입문서. 플라톤부터 맹자와 장자, 베이컨과 애덤스미스, 막스 베버와 칼 마르크스, 미셀푸코와 장 보드리야르까지 동서양의 철학과 현대 사상, 서양미술사 등 42개 주제를 정리했다. 인문 지식을 일상에서 맛따뜨리는 사회적 이슈와 다양한 사례, 역사적 사건과 접목시키면서 어렵다는 선입견을 떨치고 읽을 수 있다. 〈스마트북스·1만7500원〉

▲와인 홀릭's 노트 = 와인교육기관인 ‘제이시 와인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소믈리에 김준철씨가 와인과 친해지는 법을 전한다. ‘와인의 역사’를 시작으로 선풍 진수식에서 샴페인 병을 깨뜨리는 이유 등을 담은 ‘와인 이야기’, 와인 간 잡는 법이나 보관법, 자신에게 맞는 와인을 선택하는 기준 등을 소개한 ‘와인 상식’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책미래·1만4000원〉

▲코리안 탱크 최경주 = 한국골프의 간판 최경주의 인생 역정을 담은 자서전. 완도에서 태어나 프로골퍼로 전향한 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진출하기까지 인생 역정, PGA 생활을 하며 겪은 에환, 아들 셋을 기르는 아버지인 최경주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자서전 출간에 따른 인세 전액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 나갈 문화교육 공간인 ‘꿈의 동지’ 건립을 위한 자선금으로 쓰인다. 〈비전과 리더십·1만5000원〉



▲이상한 마을 2 - 팁 아저씨의 보물집 = 스코틀랜드 예술협회 도서상을 받은 작가 마가렛 라이언의 창작 동화. 호기심 많은 조니가 이상 마을에서 신신 배탈 일을 하며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렸다. 주인공이 뛰는 아이디어로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풀어가는가 하면, 곤경에 처한 어른을 도와주는 등 초등학교 2~4학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준다. 〈꿈터·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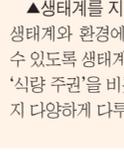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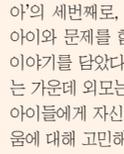
▲열혈매치 전설 = ‘열혈수탁 분투기’로 알려진 중국 작가 창신강의 풍자 소설로, 주인공 패자의 입을 빌려 인간의 탐욕을 고발하는 발상이 눈길을 끈다. 인간의 탐욕에 가족 전체가 위기를 겪게 되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아 나서는 패자의 열정적 모험담을 유쾌하게 담아냈다. 〈푸른숲주니어·9800원〉

▲쿰바의 꿈 = 한국안테르센상을 수상한 조소정씨의 신작 동화집. 메마른 땅,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불 부족으로 고통받

고 있는 아이들의 아픔과 좌절, 작고 소박한 나눔의 손길로 희망이 솟아나는 과정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다. 한국에 사는 할머니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우물 파는 일을 도와주면서 죽음의 땅에서 사는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되는 내용을 담았다. 〈창개구리·9000원〉

▲누구나 공주님 = 아이들을 위한 마음 치유 그림책 시리즈 ‘괜찮아, 괜찮아’의 세번째로, ‘외모 콤플렉스’에 빠진 여자아이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게 하는 아바 이야기를 담았다. 외모에 대한 편견이 심해지는 가운데 외모는 물론,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두레아이들·1만원〉

▲생태계를 지키는 아이들을 위한 안내서 =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생태계가 무엇인지부터 ‘먹을 거리’, ‘식량 주권’을 비롯, 최근 이뤄진 4대강 개발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플라비움·9800원〉



## 어린이 책꽂이